

산업기술 및 환경의 변화와 공업인력수급의 과제

職業觀과 勤勞意識함양 進路指導대책이 절실

趙潤馨

〈韓國經營者總協會 常務理事〉

우리나라는 經濟開發, 즉 工業化過程에 있어서 産業生産에 투입할 천연자원이 극히 빈약한 자연적인 조건, 1960년대 초기에 무제한적으로 공급되던 良質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先進國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시키고, 原·副資材를 輸入·加工하여 이를 다시 先進國에 공급하는 海外依存型·輸出主導型의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전개하여 오늘날 GNP 5000弗線의 中進國 上位圈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여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원래 무제한적으로 증가되는 人口(人力) 문제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사회적인 압박으로 고민하여 오던 우리나라는 工業化 30년이 경과한 오늘날, 人力問題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鑛工業人力의 공급차질로 인한 문제가 工業化의 발전을 저해하는 基本要因의 하나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무제한적 人力供給 현상은 農業人口의 감소, 家族計劃 事業의 成果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변동되기 시작하여 부분적인 人力需給 蹉跌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스카웃’ 과열 현상마저 일어났는가 하면 ‘賃金浮上論’도提起되었다. 1980년대말 이후 오늘날에 와서는 건설현장 및 제조업현장의 노동력충원 대책으로 東南亞의 저임인력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고, 실제로 外國勞動力이 우리 産業現場에 취업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초기부터 30년, 즉 1세대에 불과한 經濟開發-工業化의 過程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광공업 人力需給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對策方案을 모색하는 현시점에 서서 産業現場에서 需要되는 人力難을 타개할 장기적인 방향을 잡아 나아가고자 하는 데는, 1955년도에 UN에 제출된 《低開發國 工業化의 過程과 諸問題(Processes and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5)》라는 보고서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재음미하여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쓰고 읽는 능력이나 지식의 전반적인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숙련 노동자의 공급원이

되는 pool의 규모를 크게 하는 역할을 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규학교 교육의 개선이 技術的 熟練의 不足에 대한 唯一한 解決策이며 最善의 方案이다.

이렇게 어떤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국내 노동자의 교육 수준이 上昇하면 할수록 工場 雇傭으로 向하는 노동자의 수는 점점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公業화의 초기단계에서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선구적인 시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즉 인력 개발의 효과가 크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교육 시책이나 교과 내용, 교육자의 수준이나 역할등 학교측의 노력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士農工商'이라는 뿌리깊은 전통적 신분 관념과 이에서 비롯된 왜곡된 '선비' 선호 사고가 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수학이나 물리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응용 과학, 예를 들면 토목·건축, 또는 기계, 화공 등의 분야에서 보다 큰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다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 생물학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는데 생물학의 응용분야라고 할 의학과는 더 없이 큰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업인력 양성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의 기초가 약하게 되기까지에는 무려 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인과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우리의 인력개발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KDI는 1985년에 내놓은 《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總括報告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중등 교육 과정에서 장기적인 진로지도교육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인문 고교 졸업생 중 비진학자의 대부분은 아무런 技術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배출되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대부분이 대학 진학에 목표를 둬으로써 高等學校 實業教育이 職業教育으로의 社會進出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 교육 기관인 專門大學 졸업생은 산업체에서 外面당하고 있어서 학생 개인으로나 사회적

으로 낭비가 심한 실정이다.

특히 工業專門大學의 경우 동일계인 工業高等學校出身의 입학은 3할전에 불과하고 一般大學 입시에 뜻을 이루지 못한 人文系出身이 대부분 이어서 이러한 卒業生들이 산업계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기본 요인을 이루고 있다. 또한 '2年制大學'이라는 특성때문에 고용제도상 단순하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도 적극 환영받지 못하는 立場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傳聞되고 있다. 또한 6·29이후 최근에 와서는 개인적·사회적인 의식 및 행동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노사관계의 문제도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 및 취업 구조의 노동방향을 전망하는 한편, 대졸 및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공업인력개발 문제, 특히 '工專'의 인력수급 대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産業構造(生産技術 高度化)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7차 경제개발계획은 1996년에 1인당 GNP 萬弗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경제개발계획 당국이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6년도에 예상되는 총취업자는 2,056만명, 이중에서 12.5%가 농림 어업에, 28.8%가 광공업에, 58.7%가 3차 산업분야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전문기술직은 1990년보다 약 50% 증가되어 207만명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에는 2,190만명이 취업하게 될 것이고 이때 농림 어업부문은 9.2%, 광공업 부문이 28.3%, 사회 간접자본 등 3차 산업에 62.5%가 취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교육기관인 專門大學에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專門技術職과 生産職은 전자가 약 2배로 증대되어 268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한편, 생산직은 16%정도의 증가로 744만명이 취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生産自動化(FA)로 製造業 등 광공업 분야에서 고용효과가 절감되어 고용 탄성치는 7차 계획기간에 0.29(6차 기간은 0.60)로 저하될 것이나, 1996년까지의 年間 追加人力 需要는 技術職의 경우 25,200~26,700명, 기술직의 경우 4,800~71,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시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산업구조는 급격한 고도화를 이룩하고 있거니와 향후로 더욱더 지식·정보·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 공학 산업, 재료 공학 산업 메카트로닉스(機電) 공학 산업, 光工學 산업, 생명 공학 산업 등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 이에 대비하는 교육 체계, 전문 인력 공급대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달리 살펴본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다가올 21세기를 겨냥하여 볼 때 우리 산업의 국제화는 한층 가속화될 것인바, 무역 자유화, 외환(자본) 자유화에 따라 외국 자본의 對韓 直接投資 등 우리나라에 대한 開放化 요청이 한층 심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될 것이며, 전문 인력의 공급은 이에 대비하는 체제를 보다 강화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의 소비 시장도 고도 소비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대량 소비가 아닌,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취향에 맞는 多品種·少量生産 체제가 산업 일반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生産部門에 종사할 전문인력은 이에 적극 적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도 그러하거니와 향후 각광을 받게 될 상품 및 업종을 예시하여 본다면, ① 취미·여가용 상품(스포츠·레저·관광 관련 상품 및 업종, 비디오 연관 산업, 취미 생활 관련 산업), ② 參加指向商品(電寫 비디오 게임, 카메라 관련 산업, 조리 기구 연관 업종), ③ 커뮤니케이션 指向商品(패션 산업, 각종 팜플렛과 카탈로그 및 광고 선전 연관 산업, 무선 전화, 호출기 등), ④ 手製指向商品(水製靴, 手指食品, 수제 의류, 수제 가방 등), ⑤ 省에너지, 省空間, 指向商品(압력 솥, 조

림식 기구, 가정용 로봇, 컴퓨터용 가구 연관 산업), ⑥ 건강·안전 지향 상품(低脂肪, 低糖無公害 食品관련 산업) 등이다.

거듭 강조되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유망 산업 및 상품의 수요가 증대하는 고도 소비 사회가 될 것에 대비하는 전문 인력 양성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오로지 기술 개발, 연구 개발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즉 엔지니어링을 보조하는 적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대책이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高學歷 失業增大와 職業意識 변화

1990년도 1·4분기의 고용 통계로 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5.4%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高等教育을 위한 人的·물적 투입의 國家的 浪費). 그러한 반면 전문 기술직 및 생산직은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직의 부족률은 '89년 현재 제조업이 5.53%(섬유 제조업은 7.12%), 건설업은 4.3%의 높은 수준에 있다(教育=인력공급과 인력수요의 상호유리 현상의 심화).

근자에 와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힘든 일, 험한 일, 육체 노동은 적극 기피하는 풍조가 퍼지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직업의식·직업관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가 연구되고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 기업체 현장을 실제로 보면 고등학교 출신이나 대학교 출신을 막론하고 이공계 출신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이 사무·관리직보다 실수업이 월등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

이 글은 지난 10월 19일 대한공업교육학회가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공업교육발전방향」 주제로 개최한 1990년도 국제학술평의회에서 발표된 것임. <편집자註>

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비하시키고 일종의 자격지심을 느끼곤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체로 총무과나 무역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같은 나이, 같은 근속 연수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보수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무직은 생산직보다 무언가 훨씬 높은 존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사무직은 어떤 권력과 연결된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깊고, 사무직은 대학 졸업과 직결된다고 하는 思考方式도 작용하는 까닭에 현장의 생산직 사원들은 대학 출신의 사무직사원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지위가 낮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실적으로 생산직보다 사무직을 선호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학력 중심의 고용 관리 제도가 큰 요인으로 현실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산직보다 사무직을 높게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소망이 사회일반에 팽배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게 된 결과가 치열한 大入競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된 공업 전문 대학 진학자의 대부분이 인문계 출신의 4년제 정규 대학 입시의 낙방생이고, 동일계 공업 고등학교 출신은 30% 선에 불과하게 된 주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얽혀져서 발생된 것이다. 그 역사적 배경에는 모두의 문제 제기로 지적된 바 있듯이 우리 나라에 전통적으로 통념화되어 오고 있는 '土農工商'이라는 관념과 막연한 官僚意識, 官僚主義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왜곡된 '선비' 사상과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통념을 떨쳐버리는 작업은 '뼈를 깎는' 교육의 혁신을 실현하는 데서 찾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百年大計로서의 교육 제도를 확고하게 다지고 지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1990년도 전국 대졸자의 취업률은 48.8%,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54%(전문대 공업계 출신 졸업자의 취업률은 52.5%)로 알려지고 있다(월간 리크루트, '90.5.).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구인'과 일 자리를 얻고자 하는 '구직'을 등록받고 알선하여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한국 경영자 총협회부설, '인재 은행(고용 서비스 센터)'은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7월 31일까지 827명의 전문대 졸업자의 구직을 등록받고, 1,715명의 구인을 등록받아 2,685명을 알선하여 준 결과 1년 7개월에 걸쳐서 81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난다.(이러한 채용 인원수는 구인측, 구직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된 숫자이므로 연락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실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리크루트'지에 나타나고 있는 졸업자의 순취업률이 대졸자 전체적으로는 54%, 공업계의 경우 52.5%라는 점으로 보거나, 한국 경제의 인재 은행에서 알려지는 전문 대졸자의 구인에 대한 채용률이 1989년의 경우 3.99%, 1990년에는 7개월간에 5.69%로 저조한 점은 향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학교 당국의 다각도의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보게 한다.

工業教育 효과제고의 基本的 課題

産業人力의 需要·供給을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工業教育의 효과를 보다 크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소개한바 '低發展國 工業化의 과정과 제문제'에서 지적된 내용을 먼저 재음미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수준이 상승하면 할수록 공장 고용으로 향하는 노동자의 수는 점점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工業化의 초기단계에서는 뼈를 깎는 노력(방점은 필자)으로 선구적인 시책을 펴서 正規學校教育의 개선이 기술적 숙련의 부족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

한 뜻을 현단계의 우리로서는 철저히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필자는 교육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입장은 아니나 正規學校 教育過程에서 ‘때를 짚는 노력’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여 볼까 한다.

무엇보다 正規學校의 教育過程에서 착안하고 실천하여야 될 사항은 대학 등 고등교육 과정에서 수학·물리학 등 기초 과목에 보다 높은 관심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다 기본적으로 進路指導의 대책과 함께 직업관 및 근로의식에 관한 教育이 보다 充實해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進路指導는 中學 및 高等學校 과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人力供給 체계 및 그 활동과 産業人力 수요가 서로 유리되는 현상이 제거되고 인력 개발효과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學生들의 소양과 소질 및 적성·적응능력 등을 면밀하고 철저히 살펴주고 측정하여 지도해주는 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사회적 인식 및 의식의 전환에는 이러한 길이 유일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영국과 같은 경우 11세에 치르는 ‘eleven plus’가 장래 직업상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영국이 아니고 따라서 영국식 제도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의 우리로서는 中學卒業生の 진로 지도를 여하히 함으로써 졸업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장래의 직업 진로와 학업을 서로 조화시킬 것인가를 궁리하고 실천함으로써 국가 사회적인 인력의 손실과 교육비의 낭비를 예방하면서 인력 개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공업 인력 확보책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관이나 근로 의식의 함양도 진로 지도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진로 지도와 동일한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대책은 적어도 國家百年大計를 짜 나아가는 취지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朝令暮改’와 같은 시책은 모름지기 삼가야 될 것이다.)

현재 정책 당국이 공업 고등 학교 교육의 확충

을 위해 장학금의 지원 증대 등 다각도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문계 고교에 대한 공업계로의 전환도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 傳聞되고 있음은 환영할 바라 할 것이다. 이는 조속히 그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여 전문대의 동일계 진학율을 높이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족한 것은 아니며 사회적인 의식이나 企業의 운영실제에서 工業系卒業者들로 하여금 긍지를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여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착안하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업 전문 학교의 교육은 특히 여러 면에서 배려하는 바가 커야 할 것으로 본다.

공전 출신들이 왜 기업체에서 적극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학교 당국은 물론 출신자 본인들로서도 충분히 인식하여야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入社된 사람이라면 그 기업체에 철저히 적응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4년제 정규대학에 편입할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工高를 마치고 2년제 專門大를 마쳤으면 각종 설계를 हे득하고 현장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기초 능력을 갖추었는지, 원가 의식은 어떠한지, 組織員으로 직장내 인화를 조성하고 이끌어갈 자세는 되었는지(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체와 노조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 등등, 전문 인력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가를 학교측으로서의 물론, 전문대 출신들로서는 스스로 살피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이러한 착안점에서 공업 전문 대학 교의 교과내용 중 경제 사회 일반 및 직업 의식, 근로관 등에 대하여 보다 더 보강되어야 할 바는 없는 것인가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 협동 교육 문제에 대하여 이 부문에 깊은 지식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입장에서 감히 하나의 증언을 한다면 우선 서울大 農大의 李茂根교수가 ‘産學協同教育의 改善方向’에서 지적한 여러 내용에 적극 찬동하며, 특히 ‘産業教育振興法’에 의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는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시행하는 형식에 불과한 설정'이 오늘날에도 있다면 조속히 시정되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 볼 때 이른바 cooperation education 체제라는 것이 원래 移民이 모여서 세워졌고 移民이라는 형식의 노동력 수입이 전제가 되어서 발전된 나라인 美國에서 일어난 것임이 자리에서 재인식하여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英國의 eleven plus제도나 美國의 코퍼레이트 에듀케이션은 모두 우리가 참고는 할 것이로되 그

대로 모방해서 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英·美에서는 별로 채택하지 않는 프레시맨의 학력·연령 등을 기초적 지표로 하는 '定期採用', '定期昇給', '定期昇進' 制度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거듭 상기하여 보는 것이 공업 전문 대학의 교육은 물론, 공전 출신자들의 진로 지도에도 일조가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한다.

「 鑛物 제올라이트가 」

「 숫닭의 정력제 」

과학자들은 마침내 유력한 최음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것은 숫닭이나 양계업자인 경우에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약이다. 이 연구는 그런 약을 만들 의도없이 시작되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에틸사의 과학자들은 시장에 출하할 계란의 껍질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첨가제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광물 제올라이트로 만든 조제를 양계에서 시험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암닭과 숫닭은 한우리속에서 키웠기 때문에 같은 음식물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제올라이트로 식사를 한 숫닭은 털이 달린 「돈 후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짜깃기의 빈도는 20%나 늘어 났다』고 에틸사의 연구고문 세바스티안 로렌츠는

보고하고 있다.

로렌츠는 제올라이트가 무슨 이유로 숫닭은 그렇게 정열적으로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광물을 닭모이에서 칼슘분의 흡수를 늘게하여 계란껍질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로렌츠는 이번에는 이 물질을 돼지와 소와 양에게 먹여 뼈가 단단해지고 빨리 자라는가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제올라이트를 먹고 사랑의 무드가 조성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2020년에 完工될 」

「 계도도는 宇宙호텔 」

휴가란 긴장을 푸는 것을 뜻하지만 앞으로 30년내내 등장할 별난 휴양지에서는 하루밤 침실과 욕실 사용료가 1년치 봉급과 맞먹는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설계자들은 이

사업이 번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건설기업인 동경의 시미즈사는 지상 270마일 궤도에서 1백명의 손님을 수용하는 64개의 객실의 호텔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에 완공될 이 시설에 도달하자면 여행자들은 태평양 연안에 건설된 우주공항에서 발사되는 스페이스플랜(우주기)을 이용한다.

비용은 2박기준으로 1박에 14만달러.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샤워와 욕탕을 갖춘 객실은 거대한 회전링(인공중력을 생산하기 위한)을 타게 된다. 이 링의 중앙에는 「중력이 없는 유화실」이 있어 손님들은 우주멀미를 포함하여 무중력환경에서의 모든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시미즈사는 또 손님들이 몇시간씩 우주보행도 하고 스쿠터로 비행도 하면서 우주 스포츠를 즐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